

“집 밖은 위험해” 외출·모임 자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2일, 광주 북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마스크를 쓴 채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북에서 발생하는 등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5명에 이르는 등 확산하면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염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민도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을 통해 자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광주도심다중이용시설은 주말인데도 한산했으며, 봄을 앞두고 전남도내 시·군이 준비한 축제와 행사 등이 대거 취소·연기되면서 나들이객도 크게 줄었다.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50여일 연기했다.

2일 오후 찾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 롯데시네마는 마스크를 착용한 10여명의 관람객만이 영화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상영시간을 10분여 남겨두고서도 예매 좌석은 고작 10여 석에 불과했고, 다른 8개 상영관 역시 관람객이 없지는 마찬가지였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걱정도 컸다. 주말이면 영유아를 동반한 젊은 부모들로 북적이던 백화점 문화센터 등은 되레 강좌를 취소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꾼 광주·전남의 일상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한산’ ... 지역축제 취소 잇따라 거리엔 마스크 쓴 사람들 ... 만나면 악수 대신 눈인사

려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13개월 된 여아를 둔 김유나(여·37·광주시 남구)씨는 “아이 성장 발달에 좋을 것 같아 생후 6개월 때부터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해 왔다”면서 “줄을 서서 힘들게 수강 신청을 했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우려돼 수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난 지난 28일부터 2월 1일 까지 70건의 수강 취소가 이뤄졌다. 아카데미 관계자는 “48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강좌에 등록했던 부모들이 불안함에 강좌취소 여부 등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문의와 취소 전화가 하루 평균 20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도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주일을 맞은 이날 광주시 동구의 한 교회에서는 대부분 신도

들이 마스크를 착용 한 채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신도들은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악수를 자제하고 눈인사로 대체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비치된 손세정제 이용자들도 급증했다.

방학이던 광주·전남에서 관람객이 몰리는 국립광주과학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타격을 받았다. 방학기간을 맞은 국립광주과학관은 주말 하루 평균 1500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지만, 감염증 확산 이후 이번 주말에는 관람객 숫자가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다른 시설들도 일요일인데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한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북 군산에서 발생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1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

지를 위해 재난대책지원본부를 출범한데 이어 2일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방지 총력 대응을 위한 긴급 종합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자체들의 축제 취소 또는 연기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7일부터 열 예정이던 고싸움놀이축제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신안군은 지난달 28일 압해도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50일간 연 ‘섬 겨울꽃 에기동백축제’의 중단을 결정했다. 여수시와 고흥군은 22일 예정된 여수·고흥다리개통 기념 마라톤대회를 내부 협의의 거쳐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광양시 역시 3월 대하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국방부는 오는 3월 2일 시작 예정인 동원훈련 및 지역 예비군 훈련을 4월 17일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은 4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또 가족동반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을 열지 않도록 각 군에 지침을 내렸다. 신병 입소식 등은 부대 내 자체 행사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주, 적합도 조사 ... 예비후보 단일화 활발

총선 D-72 광주·전남 정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적합도조사를 시작하는 등 4·15 총선 후보의 공천 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광주 동남갑 이정희 예비후보가 공천심사를 앞두고 중도 사퇴하면서 후보 간 단일화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달 28일까지 출마 접수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공천관리위원회가 지역구별로 진행되는 적합도 조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문자 메시지와 SNS로 여론조사 진행 사실을 알리며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마를 선언한 이재정 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명분, 그리고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2-3위를 차지했던 이 예비후보의 사퇴로 동남갑 지역구 판세도 출렁이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는지 여부도 조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후보들은 단일화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 격차가 20% 이상 벌어지면 컷오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산을 일부 후보들이 지난 1일 후보단일화 여부를 논의했고, 앞서 서구를 이남재·최희용 후보가 이남재 후보로 단일화했다.

한편 민주당 적합도 조사는 정체성(15%)·기여도(10%)·의정활동 능력(10%)·도덕성(15%)·면접(10%)에 비해 비중이 40%로 현저히 높아 심사 결과를 결정지를 최대 변수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7~10일 서류·면접 심사를 하고, 20일경 경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선은 2월말이나 3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수처·수사권조정 준비기구 설치 ... 경찰개혁법 상반기 완료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동시에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법 통과에도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총리는 우선 공수처 설립 준비단에

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는 부정할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 총리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내일부터 입국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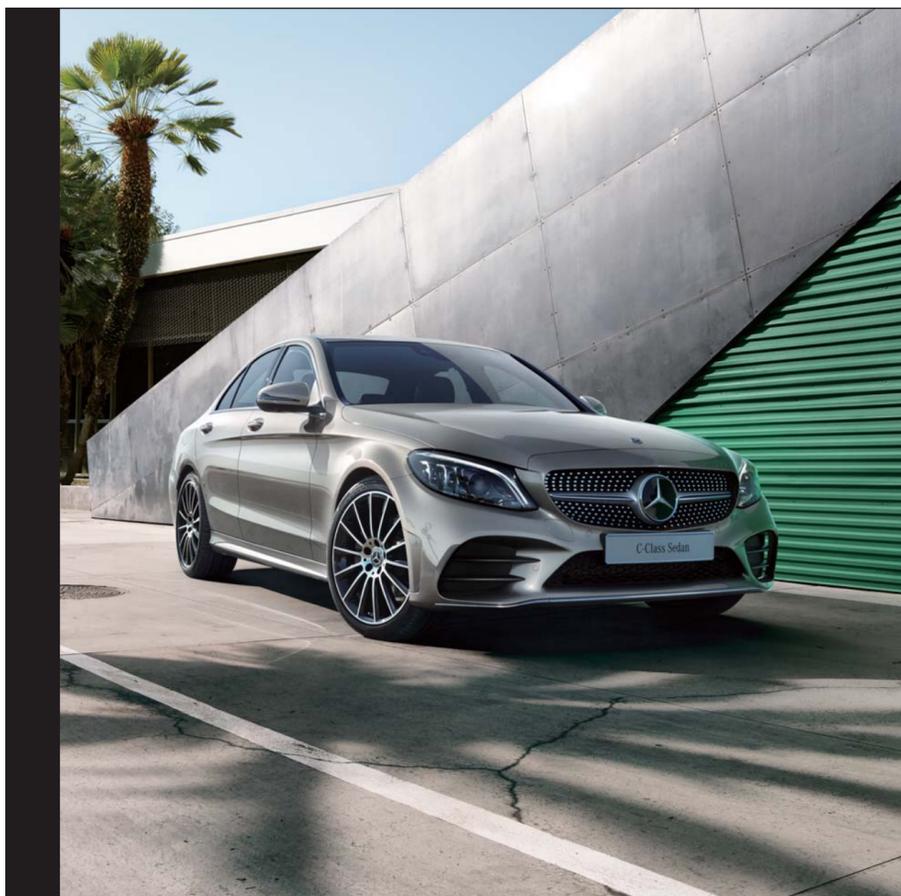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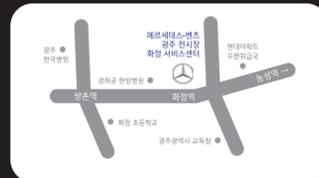
키로 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l(도심연비: 13.2km/l, 고속도로연비: 16.3km/l),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